

# 포천상공회의소 CEO초청 경제포럼

## 허범도 박사 “글로벌 경제와 중소기업인의 역할” 특강



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오후 3시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산업지원부 무역위원회 허범도 상임위원을 초청해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포천상공회의소(회장 김인만)와 포천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박윤국 포천시장, 최대중 포천시회의회장, 이대열 포천소방서장, 이천목 포천시의회 산 업도시위원장과 관내 기업경영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EO

초청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경제포럼은 산업지원부 무역위원회 허범도 상임위원을 초청해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유가급등 및 환율하락 등으로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비전 제시

를 위하여 『글로벌 경제와 중소기업인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허 위원은 새로운 중소기업 경영 모형과 중소기업정책의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허 위원은 새로운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방향에서 기술지원정책은 현장의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과 대학·연구소에서 보유한 기술간 괴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유인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기술개발의 성과 및 지원의 적정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지원정책은 지원방식을 합리화하고 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우선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자기책임 하에 신용을 축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우대받고 많은 자금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케팅 지원정책은 해외수출부분과 내수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수출지원정책은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수출금융 등 기업의 수출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무역실무교육, 수출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수출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내수 판매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도와 제품 신뢰성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개발 및 제품 품질제고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초청강연에 참석한 박윤국 포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춘천이 춘천답을 건설하면서 호반의 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포천시도 한탄강 담 건설로 포천시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포천송우 국민임대 5단지 공급

20평형 60가구, 23평형 406가구

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는 16일 포천송우택지개발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 466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20평형 60가구, 23평형 406가구로 구성되며 20평형은 보증금 1천4백만원에 월 16만 8천 원, 23평형은 1천630만원에 19만원이다. 입주 시기는 2005년 11월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소홀음 시가지와 인접해있으며 국도 43호선과 지방도 56호선을 통해 서울과 양주, 의정부 등 인근 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지 내 어린이 놀이터, 운동공간 및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 의정부 주택전시관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신청자격은 청약저축 가입 2년이 지나고 청약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청약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기타는 3순위로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에 이뤄지며 계약은 내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문의 (031)826-6182

지혁배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송우 국민임대 5단지 조감도.

# 주요 업종의 2004년 실적 및 2005년 전망 조사

전자, 자동차 등 호조세 지속 ... 건설, 섬유 침체 지속 예상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주요 업종별 협회의 의견을 종합한 '주요 업종의 2004년 실적 및 2005년 전망 조사'에 따르면, 2005년도에는 전자, 자동차 등의 업종은 올해에 이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반면 올해 부진했던 건설, 섬유 등은 내년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건설, 섬유 등의 업종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 부동산 침체 지속, 섬유쿼터제 폐지, 중국산 저가제품의 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내년도에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올해 30% 이상의 고(高)



엔트산업은 지난 18일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소재 공장에서 '공장이전 축성식'을 가졌다.

# 실용적인 쇼핑백과 비닐포장재를 생산업체

엔트산업 공장이전 축성식 갖고 새출발 다짐

엔트산업(대표 최선일)은 지난 18일 오후 2시 포천시 가산면 소재 공장에서 축객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이전 축성식'이 열렸다.

엔트산업은 1985년 창립한 이래 20여년간의 노하우와 기술개발과 발전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하면서 실용적인 쇼핑백과 비닐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완벽한 제품생산과 철저한 품질관리,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엔트산업은 포천신문(2004년 11월 30일자)에

보도된 바 있다.

한편, 최선일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포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엔트산업은 전 임직원들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품출고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납품하고 있고 여기에 최첨단 생산시설까지 갖추게 되어 주위 업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백성주 기자 paek1031@freechal.com

성장을 달성한 반도체는 공급과잉 우려와 세계시장의 수요둔화 등으로 인해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내년도에는 환율하락 지속 여부가 산업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정유, 철강 업종을 제외한 섬유, 조선 등 대부분 업종에서 환율하락에 따른 부정적 인 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선업종은 수주 및 수출시점간 시차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할 것

로 보이며, 특히 섬유업종은 올해말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한 미국, 유럽 등의 섬유쿼터제 폐지는 악재와 함께 주요 경쟁국인 중국이 고장원천제를 고수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철강과 정유업종은 환율하락으로 인한 원가 절감, 외화부채 감소 효과 등으로 인해 타 업종과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탐 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 삼화 PKG

## 실용적인 쇼핑백과 비닐포장재 생산업체



대표 송상섭

"최근들어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있는 박스는 안전하게 제품을 이동하기 위한 목적을 떠나 편리성, 디자인, 완충기능 등 다기능 제품을 고객들은 선호하고 있으며 구매하는 고객들의 눈높이에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제공하려면 박스업 관계자들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독특하고 세련된 양질의 박스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된다."

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이미지 창출에 필요한 골판지 상자 및 컬러 박스를 주문생산하

는 안전하게 제품을 이동하기 위한 목적을 떠나 편리성, 디자인, 완충기능 등 다기능 제품을 고객들은 선호하고 있으며 구매하는 고객들의 눈높이에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제공하려면 박스업 관계자들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독특하고 세련된 양질의 박스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된다."

송 대표는 "규모나 생산면에서 동종업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며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며, 질 좋은 제품과 보다 나은 서비스로 기존의 거래처와는 유대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인드 아래 송 대표와 직원들은 자사의 발전을 위해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차별화된 제품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송 대표는 직원들과 열린대화를 통해 작업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며 직원들 입장에서 서서 수용하며 내가 좀 손해보면 된다는 각오로 직원들의 사기충전에도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삼화 PKG는 아직은 도약의 단계이지만 송 대표와 직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알토란' 같은 내실있는 경영으로 현재 포천과 연천을 중심으로 30여개가 넘는 거래처를 관리하며 꾸준한 매출을 자랑하고 있다.

다년간 영업쪽에 몸 담았던 송 대표는 거래처의 현실, 거래처 사장의 성격을 누구든지 알게 잘 파악하고 있으며 신용 또한 업계에서 인정받아 송 대표가 꾸준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란 마인드 아래 새로운 비전으로 차별화된 제품생산에 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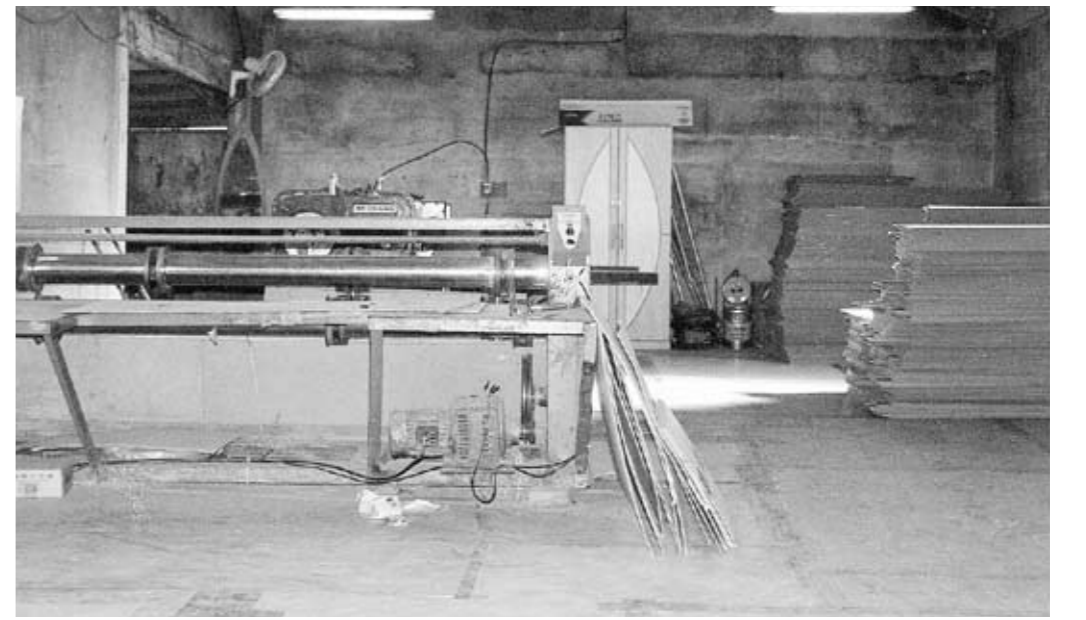
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삼화 PKG(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540-4 대표: 송상섭) 송 대표는 박스업에 15년 동안 종사하며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주무기로 차별화된 제품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송 대표는 (주) 삼화에서 다년간 몸 담았던 경험을 토대로 서로가 상상한다는 마음으로 유대를 강화하며 적극적인 마인드와 탁월한 추진력을 인정받으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주무기로 지난 2000년 창업에 하게 되었다.

삼화PKG는 주문에서 납품까지 일괄하게 생산하며 박스 제작 과정을 알아보면 골판지 박스의 경우 : 자재 발주-인쇄-제작-납품.

컬러박스: 자재발주-인쇄-코팅-합지-후가공-납품으로 이어진다.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지만 묵묵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송 대표의 모습에서 꿈꾸어온 목표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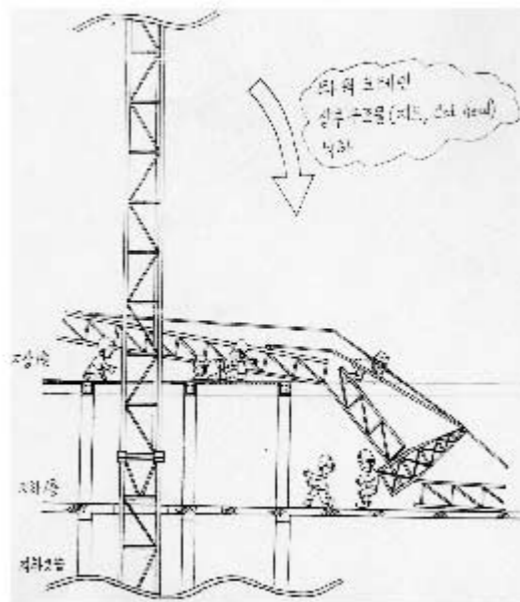
문의전화 031)541-7285  
정병갑기자 jpk61@paran.com



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이미지 창출에 필요한 골판지 상자 및 컬러 박스를 주문생산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삼화 PKG.

# 산업안전사고 예방

## 타워크레인 사용중 분리·낙하



재해발생 상황도

0000년 2월 오전10시경 경기도 (주)00신속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지하층과 지상층에서 거푸집 및 철근배근 작업중, 철근다발(D10mm, 420개, 약 1.88ton)을 선회 운반하던 타워크레인의 상부구조물(메인프레임, 카운터프레임, 캐트)이 지지부에서 이탈 약 30m 아래로 낙하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작업시작 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캐트의 흔들림, 선회동작의 이상 및 트롤리 주행시 오토작 등의 여부를 작업시작 전 점검해야 함에도 점검치 않았던 것이다. 둘째, 출입금지 조치의 미실시를 들 수 있다. 타워크레인 사용 작업시에는 낙하, 비레 위험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작업시작 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작업 시작전에 작동 등의 이상 유무를 필히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원인 조사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출입금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사용 작업시에는 낙하, 비레 위험장소를 위하여 위험 우려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031)826-6091

# 새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 결혼·이사·장례비용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장례·혼인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혼인하거나 이사·장례비용이 발생한 경우 각각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 결혼·장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 이사: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 올해 결혼을 했는데, 예식장 사용비나 피로면 비용 등 결혼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또 결혼해서 분가

했을 경우 결혼, 이사 모두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결혼, 이사와 관련한 소득공제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지출된 비용 영수증과는 상관없이 각각 100만원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동시에 이사를 하였다면 200만원의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은 직장 근로자입니다. 본인 외에 다른 가족의 소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28살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공금한 것은 동생의 결혼비용을 거의 제가 부담하였을 경우 소득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A 혼인의 경우 공제대상은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므로, 28살 여동생의 결혼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